

2025년 예산: 병원 수용 능력 확대

2025년 3월 6일

앨버타주 정부는 2025년 예산 자본 계획의 일환으로 2년간 1,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주 전역의 병원 수용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앨버타주 정부는 모든 앨버타 주민이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는 미래의 성장을 수용하고 변화하는 필요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완공되지 않은(미완성) 공간과 비어 있는 공간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앨버타주 의료 시설 내 모든 미완성 공간과 비어 있는 공간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향후 개발 가능한 기회를 결정할 것입니다. 기존 공간을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의료 역량을 더 빠르게 확대하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온타리오주 전역의 환자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예산이 통과되면 1,000만 달러 규모의 미완성 및 공실 공간 개발 자본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약속을 책임감 있게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라, 앨버타주 전역의 기존 의료 시설 내 미완성 공간과 공실 공간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미완성 공간이나 공실 공간을 개발하는 것은 의료 인프라를 확장하는 더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이러한 개발 기회를 파악하여 앨버타 주민들을 위한 의료 역량을 최대한 빠르게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드리아나 라그랑주(Adriana LaGrange), 보건부 장관

검토 중인 시설로는 캘거리의 피터 로히드 센터(Peter Lougheed Centre)와 톰 베이커 센터(Tom Baker Centre), 에드먼턴의 마잔코프스키 심장 연구소(Mazankowski Heart Institute)와 케이 클리닉(Kaye Clinic) 그리고 그랜드 프레리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외래 진료 센터(Queen Elizabeth II Ambulatory Care Centre)가 있습니다.

자본 계획의 자금은 이러한 공간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며, 여기에는 건설이 시작되기 전 종합적인 프로젝트 비용 산정과 세부 계획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초 작업을 미리 완료함으로써 정부는 향후 예산 승인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앨버타 인프라는 앨버타주 보건부(Alberta Health)의 지침에 따라 2년간의 계획 수립을 주도하며 의료 프로그램 및 서비스 필요에 맞는 조정을 보장할 것입니다.

"병원의 저활용 공간에 대한 건설 및 리노베이션 기회를 파악하기 위한 이 이니셔티브는 우리 정부가 의료 역량을 개선하고 앨버타 주민의 요구를 더 효과적으로 충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이끌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마틴 롱(Martin Long), 인프라부 장관

계획 수립 과정이 완료되면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 자본금이 건설에 배정될 것입니다. 선정된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는 이르면 2025년 가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앨버타 의료 서비스는 기존 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병원 수용 규모를 확장하고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번 투자는 병원의 병상 수와 수술 역량을 확대하여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안드레 트렘블레(Andre Tremblay), 앨버타 의료 서비스 사장 서리 겸 CEO

이번 이니셔티브는 앨버타주 전역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병원 확장 사업의 일부입니다.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2025년 예산에는 앨버타 수술 이니셔티브 자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술실 수용 규모 확대를 위해 2억 6,500만 달러가 포함되고, 독립형 스톨러리 어린이 병원(Stollery Children's Hospital)을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데 1,100만 달러, 그레이 년스와 미세리코르디아 지역 병원에 최대 700개의 병상을 추가할 입원 병동 건설 계획을 지원하는 데 200만 달러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최근 완료된 로키뷰 종합병원(Rockyview General Hospital)의 중환자실, 관상동맥 치료실 및 내시경실 확장 사업(8,400만 달러 규모)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운영 병상 수가 약 50% 증가했고, 캘거리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아서 J.E 차일드 종합 암 센터(Arthur J.E. Child Comprehensive Cancer Centre)가 개원했습니다. 이 센터는 127,000㎡의 공간에 160개의 입원 병상을 추가했으며, 이 중

9,200㎡ 이상이 연구 전용 공간으로 할당되었습니다. 두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캘거리 지역의 병원 수용 능력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2025년 예산은 지속적인 교육 및 보건 투자, 가계 세금 인하 그리고 경제 성장에 대한 집중을 통해 앨버타가 직면한 과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

- [2025년 예산](#)

관련 뉴스

- [2025년, 탁월함을 기반으로 도약](#) (2025년 1월 9일)
- [앨버타 남부 심장 치료 서비스 확대](#) (2024년 10월 22일)
- [앨버타 전역의 농촌 의료 시설에 대한 투자](#) (2024년 9월 24일)